

목회, 위험한 소명
-Confronting the unique challenges of Pastoral Ministry-
-폴 트립 著-

발제 : 정종남 (벧엘교회)

이 책을 읽을 때는 내면의 보호막을 해제하고,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주시기를 바란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간과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보여야 한다는 강박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높이 찬양하라!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을 그분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무 두려움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장 어두운 비밀과 뼈저린 실패를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다. (p. 7)

Part 1. 나의 목회 현 주소를 직시하라 (Examining Pastoral Culture)

1부의 주된 목적은 본서의 저작 동기다. 그러나 세심한 독자들은 1부를 통해 본서 전체의 밑그림을 스케치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우리가 잠시만 주변을 둘러보아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목회자들의 슬프고도 “만연한” 현실을 예리하면서도 침착하게 진단함으로 이 과제를 수행한다.

A. 사역을 통해 병드는 목사

Chapter 1. 난 목회자야.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게 나는 필요하지 않아! (Headed for disaster)

나는 나 자신이 목회자이기 전에 매일 은혜를 필요로 하고, 죄와 싸우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도움을 구하면서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p. 22)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다. 목회자가 자신의 사역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태한 선택이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이를 알아채기가 쉽지 않다. 예쁜 꽃 그림을 그린 후에 꽃 향기까지 뿌려 놓는다면 벌이 날아들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림 꽃에서는 꿀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나의 사역이 곧 나의 정체성이 되고 말했다. 나는 내가 결코 줄 수 없는 것(내면의 행복)을 내게 주려고 노력했다. (p. 26) ...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와 교인들, 하나님 나라의 사역, 구원의 계획, 교회에 충실하신 것을 나를 인정하신다는 증거로 착각했다. (p. 30)

잘못된 성공에 도취되면 진정한 성공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은 자신의 실패를 기뻐하고, 성공을 슬퍼하는 것이다.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나 결국 인생

전체가 무너진 폐허 위에 던져지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물론 이것은 목회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목회자에게 더욱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목회자가 자신의 사역은 보통 성도의 헌신이나 봉사와 전혀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니까, 우리의 만남은 대부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설교를 하니까... 다시 말해 목회 사역은 평신도들의 봉사와는 구별된 '특별한' 사역이기 때문에, 목회자 자신 역시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것이다.

쥐구멍에 숨은 쥐는 좀처럼 잡기 힘들다. 사역으로 자신을 온통 가리운 목회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받기 힘든 부자 아니겠는가? 이 착각의 덫에 걸린 목회자는 있는 힘을 다해 교회의 그 어느 구성원보다 더욱 용감무쌍하게 '재앙'을 향해 돌진하게 된다. (*Headed for disaster*)

Chapter 2. 더 이상 못하겠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 (Again and Again)

안타깝게도 돌이킬 수 없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도대체 무엇이 잘 못 되었을까?'를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많다. 이것은 마치 시민들의 안전과 구제를 위해 힘써야 하는 소방관이 평상시에는 위험요소들을 못 본척하다가 막상 사고가 나면 현장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것과 같다.

하인리히의 법칙이 드러내는 것처럼, 어느 날 지속적으로 모든 사역과 삶이 다 무너져 내린 것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복적인 (*Again and Again*) 거절의 증거다.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습관적으로 거절하는 사람들의 징후를 9가지로 열거하는데, 나는 다시 3가지로 요약했다.

① '죄' 자체에 대한 방만함

솔직히 말하면 모든 것을 그만두고 이곳을 떠나고 싶습니다. 아내와도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불륜을 저질러서가 아닙니다. 단지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이 피곤해졌기 때문입니다. (p. 36)

우리는 성적인 범죄나 교회 재정과 관련된 문제에서 깨끗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는 죄로부터 우리자신을 지키는데 능숙하다. 아울러 우리가 범하지 않는 죄를 저지른 동료들을 비난하는 일에서는 더욱 신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더러움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죄의 결과이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실상은 그 죄가 가져오는 치명적인 타격을 피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결과가 없는 죄는 없다. 작은 죄도 없다. 아직 들키지 않았으니까... 이 정도는 사회적으로 충분히 용인되니까... 이런 형편과 환경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순간의

위기를 넘어가는 것은 더 큰 위험으로 향하는 과정일 뿐이다.

② 자신에 대한 관대함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보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위험한 것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는데도 스스로의 눈먼 상태를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p. 40)

어리석은 자여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라! (마 7:5)

만일 우리가 항상 다른 교회의 부패와 비성경적인 관습을 비판한다면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이의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혹독하게 대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참견이다. 회초리는 버릇없는 동네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

③ 허망한 꿈을 꾸며, 잘못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함

우리의 영적 행복을 수직적 차원에서 찾지 못하면 수평적 차원에서 찾으려고 애쓰다가 늘 공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p. 42)

B.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적당히 좋은 것들로 대체시키는 사역 문화

Chapter 3. 나는 성경연구가 중요해. 사람들은 사역의 걸림돌일 뿐 (Big Theological Brains and Heart Disease)

&

Chapter 4. 목회 기술과 지식은 기본! 인격은 옵션? (More than Knowledge and Skill)

저자는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가? (3장) 우리는 목회 사역을 위해서 어떤 일에 가장 힘써야 하는가? (4장) 여기에 대한 대답은 "목회자의 마음과 삶"이다.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학적 지식이 아니라, '마음과 삶의 변화'다. (p. 64)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항변이 예상되지 않는가?

"그러한 주장은 지나치게 단순하고 현실성을 결여한 이상주의일 뿐입니다. 당장 당신이 신학교에 가보십시오. 신입생을 모집할 때 시험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턱대고 '우리 학교는 마음이 준비된 학생만을 가르치겠습니다.'라고 공고한다면 신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교회의 장로라면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우리 교회는 마음이 준비된 목회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준비된 마음은 어떻게 가려낼 수 있

습니까? 당사자에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냐고 물으면 해결됩니까?”

아쉽지만 저자는 이러한 반대론을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한 것 같지 않다. 어쩌면 저자의 비범한 사역 능력이 대부분의 평범함 목회자들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는데 약간의 장애가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방향 제시만큼은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① 마음의 중요성

우선 마음의 중요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자는 특정한 교회 제도나 신학교의 커리큘럼을 문제삼지 않는다. 이러한 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역에 대한 바른 마음과 자세를 무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시대에 많은 사역자들이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다.

고백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것은 바라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만큼이나 크다. 어느 시대나 공부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공부하지 않는 학생이 많은 것처럼,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마음을 지키는 일에는 실패하는 목회자가 많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분명한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특별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사역자의 정결하고 진실한 마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문제는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흑백의 세상이 아니라, '그리고'와 '둘 다'의 속성을 지닌 혼란스러운 세상 안에서 발생한다. (p. 66)

② 왜 우리는 이 중요한 것을 상실했는가?

(우리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 하나님의 백성들 돌보게 할 사람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p. 84)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우리는 직접 만나야 한다. 대화도 해야 한다. 업무적으로 가득 찬 관계가 아니라,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세워나가야 한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궤도가 되어야 한다.

③ 가장 크게 병든 마음

또한 저자는 바울부터 모세까지 믿음의 선진들이 결국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른 선택을 했고, 그에 따른 다른 결과가 주어졌다고 말한다. 그리고 마음의 상태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어떤 사람들도 한 평생 올곧은 마음의 자세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도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큰 착각은 그 마음이 완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목회자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언제나 부족하고, 어느 정도는 속았고, 어느 정도는 유

혹에 넘어가 있기 때문이다.

사역이 그릇된 방향으로 치우치는 이유는 지도자들이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들을 스스로에게는 적용하려고 들지 않기 때문이다. ... 모든 목회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p.89)

C. 은혜를 짐으로 바꾸어 버린 목회 문화

Chapter 5. 다른 사람들에게 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Joints and Ligaments)

&

Chapter 6.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 나는 외톨이야! (The Missing Community)

교회는 우리가 회복되는 곳이고, 은혜가 임하는 곳이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은혜를 경험한다. 그러나 목회자들은 이 은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전하고, 훈련 시키는 자리에 서야 한다. 항상 우리는 서 있고, 다른 이들은 앉아 있다. 우리는 말하고 다른 이들을 듣는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덧 우리가 교회에서 매우 '특별한 존재'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특별한 사역'이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까지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머리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목회자 역시 지체의 일부일 뿐이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데 차이가 없다.

하나님은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가 교회의 사역을 통해 도움을 얻도록 계획하셨다. (p. 91) ...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분의 몸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이끄는 역할을 하는 목회자도 결코 예외일 수가 없다. ... 그리스도께서 몸의 머리시라면, 그 나머지는 모두 그분의 지체에 해당한다. (p.92)

그러나, 목회자들은 신앙 공동체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위로를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끄는 목회자는 다른 교인들보다 몸의 사역이 주는 혜택을 덜 받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과연 옳을까? (p. 106)

신앙 공동체는 우리 사역의 현장 이전에 우리의 생명의 품이다. 칼빈이 주장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고백해야 한다.

교회가 아무리 작을 지라도 그래서 돈이 없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다해도 그곳이 참된 교회라면 교회는 사역자의 일터 이전에 삶터이다.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키며, 내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를 세운다. 교회로부터 이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저 교회를 자신의 달란트나 재능을 나타내는 전시장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사랑 받지 못했으니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성향이 있다. (p.98)

다른 그 누구보다 목회자는 교회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앞 장에서 저자는 다른 누구보다 목회자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제 저자는 다른 누구보다 목회자는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사모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서로의 삶에 의도적으로 개입해 구원과 은혜의 사역을 펼치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공동체'안에서의 삶에 헌신해야 한다. (p. 114)

D. 주제 제시

결국 현대 목회 문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목회자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파멸의 길로 몰아 넣고 있는 심각한 위험이다. 이에 저자는 본서의 전체 주제를 제기한다. 목회자들은 평생의 사역 기간 중에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영혼을 지켜내야 하는 중요한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다. 이 싸움에 승리하지 못한 채 승전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것은 돈키호테의 노래와 다를 바가 없다.

Chapter 7. 내 마음속 두 왕국의 싸움 너무 버거워 (War Zones)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다루고 싶은 주제는 바로 '내면의 싸움'이다. 목회자는 복음을 위한 싸움을 준비해야 할 뿐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위한 싸움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P. 136)

성경은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전쟁용어로 비유할 때가 많다. 전쟁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뜻한다. 전쟁보다 급박하고 불편하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무엇이겠는가? 그 최악의 상황이 성도의 삶이다. 그렇다면 목회자는 어떤가? 우리는 이 전쟁을 끝낸 사람인가? 종종 몇몇 사람들이 목회자들은 믿음의 싸움의 최전선에서 한 발 물러선 자리에 있는 것처럼 말한다. 목회자들은 항상 교회라는 안전한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느니까.. 회식자리에서 권해지는 술도 없고, 주일성수를 위한 희생이나 노력도 없으니까... 목회자들은 평안한 가운데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이 안일한 생각을 일격한다.

정작 나의 내면에서 격렬한 싸움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이 싸움은 목회자만의 독특한 경험이거나 목회 사역을 통해 더욱 결렬해지는 속성이 있다. (p. 136)

저자는 본 장에서 힘들고 지친 목회자들의 마음을 잠깐 달래주는 것에 이 책의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단순히 주변 사람의 위로와 듣기 좋은 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힘을 얻을 수 없다. 이 싸움의 승패는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무엇이 없기에 목회사역을 포기하고 싶은가? 무엇을 추구하기에 사역이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는가? 무엇이 두려움에 주저하며 전전긍긍하는가? 무엇을 탐하기에 힘이 소진될 정도로 기진맥진한가? 무엇을 갈망하기에 사역의 아름다움과 기쁨이 사라진 것인가? 무엇을 바라기에 목회사역과 가정 생활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가? (p. 144)

목회 사역의 싸움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가리킨다. 이 싸움에서는 목회자의 가치, 충성심, 동기, 미묘한 욕망, 근원적인 꿈이 관련되어 있다. (p. 137)

목회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줄 알면서 실상은 자기 왕국을 세우기에 가장 좋은 자리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야말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선 사람들이다! 기억하라! 우리는 싸움의 한복판에 던져진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들이다. 많은 성도들이 이 싸움의 치열함과 힘겨움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뒷짐을 쥐고 물러 나 있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서도 자신을 안전지대에 올라 섰다고 착각한다면 이처럼 슬픈 희극은 세상에 다시 없는 것이다.

Part2. 잃어버린 경외심을 회복하라!

(Dangerous of losing your awe – Forgetting Who God is)

사역으로 인한 많은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모든 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일까? 저자의 말로 환원하면 목회자가 가장 중요한 싸움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상실'하는 것이다.

Chapter 8.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삶, 아무런 기쁨이 없어. (Familiarity)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위기는 다름 아닌 점점 무뎠어지는 경외심이다.

가장 위험한 일은 늘 가장 거룩한 것과 접촉하며 살아가는데 있다. (p. 161)

목회자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채 조직체의 한 부분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정해진 프로그램과 프로세스를 따라 가동되는 공장의 기계처럼,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요구되는 일정한 업무를 짜여진 틀 안에서 수행하고 있을 때가 많다.

이것이 왜 위험한 일일까? 하나님의 일에 익숙해지는 것이 경외심을 잃어버리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p. 162)

경외심이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과 우리를 향한 끝없는 은혜에 압도당하여, 하나님 당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이다.

물론, 저자는 통상적인 사역 과정이나 수단을 무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교회의 시스템도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철저히 사로잡히지 않게 되면, 어느덧 높아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은 거짓말과 기만으로 스스로를 포장하고, 두려운 마음에 염려과 근심을 초대한다. 그리고 조만간 낙심하며 무기력하고 영적인 나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Chapter 9. 도대체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Dirty Secret)

‘수치스러운 비밀’이란 그가 하는 일이 대부분 믿음이 아닌 두려움에서 비롯한다는 것이다. (p. 178)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질 때 목회자들은 그 즉시 또 다른 두려움에 직면한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두려움은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수치심을 유발한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이 마땅치 못한 두려움을 감추려고 하는데, 이 때 가장 좋은 가리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엄청나게 경외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여기 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두려움 때문에 지나치게 편협하고, 지배적이고, 남을 통제하려고 애쓰고 있을까? .. 실제로는 두려움 때문에 한 일이면서도 겉으로는 믿음으로 한 것처럼 연기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될까? (p. 179)

자신의 직분을 근거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그러나 그 정도로 뻔뻔하지는 않더라도 목사이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진 사람은 더욱 많다.

그러나 저자는 두려움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한다. 문제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굴복하며, 또한 이 두려움을 매우 은밀하게 감추고, 비열하게 치장하는 것이다. (**Dirty Secret**) 나는 이 ‘더러운 두려움’이 ‘위선’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한다.

만약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착각한다면 우리는 매일 새롭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알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이기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싸움을 피할 수 없다. 반드시 승리한다는 말은 반드시 싸워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10장 이번에 또 무슨 설교를 하지? 그냥 대충하지 뭐! (mediocrity)

만약 우리가 경외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그리고 해결하지 못한 두려움을 감춘 채 위선자로서의 삶을 산다. 위선자는 당연한 문제들에 휘말리지 않은 재주가 있지만, 결코 '급급한 삶'을 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목회자의 설교는 점점 멍통해져서 그 누구의 심기도 건드리지 못한다.

한 주간에 마지막 순간을 설교 준비로 정신없이 보내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가?
... 내가 보기에 이것은 목회자의 일정이나 게으름 때문이 아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다. ... 우리의 영혼이 매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추구한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높이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에 깊이 매료된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의식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p. 198)

저자는 목회자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그의 은혜와 영광에 사로 잡혀 있다면, 그리고 모든 두려움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싸우는 자라면, 그의 설교는 이러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드러낼 것이라고 주장한다.

평범하다는 것은 시간, 인력, 자원, 장소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 하나님을 경외하면... 확신과 영감이 생기고, 무슨 일이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다. (p. 203)

저자가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평범함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에게도 부족하지 않으나, 어떤 사람에게도 충분하지 못한... 그래서 발전은 없어도 유지는 가능한 상태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그렇게 냉정한 현상 유지로 만족할 수 있을까? 참된 설교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그 사실로는 채울 수 없는 열망을 감출 수 없다.

사역의 '탁월함'은 영광의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삶의 우선 순위를 결정짓는 거룩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 탁월함은 일종의 관계다. 온전히 탁월한 분은 하나님 한 뿐 뿐이시다... 그분은 존재와 행위를 모두 아우르는 탁월함의 정수요,

실재시다. ... 목회자는 그런 탁월함을 전하는 사자다. (p. 204)

끊임없이 가장 쉽고 편안한 길을 찾는 목회자들이 있다. 애당초 사역의 목표가 무리 없는 교회 운영인 사역자들도 있다. 그러나 끊임없이 지속되는 걸치레는 사역자를 녹초로 만들어 버린다. 이런 사람에게는 설교가 너무나 피할 수 없는 짐일 뿐이다.

총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에게 총은 무기가 아니라, 귀찮은 쇠덩어리에 불과하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목회자에게 설교는 그저 성경에 대한 주석지식을 늘어놓거나, 혹은 쓸데 없는 공상을 나열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설교는 반드시 가져야 하는 사역의 도구가 된다. 설교는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변화의 은혜를 일으킨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우리의 설교가 너무나 평범해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원인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 .. 우리가 경외심을 잃었기 때문이다. (p. 209)

Chapter 11.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영적으로 성숙하니? (Between the already and not yet)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상실되었고, 세상의 계산과 평가가 마음에 두려움을 준다.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알지 못하고 적당한 수준의 사람들에게 문제가 없을 정도의 '정통 교리'를 진술하는 목사에게 남는 질문은 하나다. 어디에서 '사역의 의미'를 찾을 것인가?

나는 성경에 대해 해박하니까.. 나는 많은 사역을 통해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잊는다. 그리고 자신이 이룬 그 의를 열심히 드러내는 것을 헌신이라고 생각한다. 정작 그의 삶을 부러워하며 듣는 사람들은 낙심하는 마음으로 삶에 돌아간다.

개인 예배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통독했느냐 하는 문제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 자신이 좋아하는 경건 서적이거나 주석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느냐하는 문제와도 상관 없고, 설교 노트를 얼마나 자주 다시 읽고 생각했느냐 하는 문제와도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 활동은 좀 더 근본적인 것을 위한 보조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무엇이 근본적인 것일까? 그것은 매일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즐거이 예배하는 것이다. (p. 230)

이것은 꼭 저자와 같은 '성공적인 사역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교훈은 아니다. 우리는 성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실패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잃어버린다.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동일한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 이끌리는 사람들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이다. 고요한 강물에 돌을

집어 던지는 사람처럼 보인다. 때로는 이 사람들이 이를 수 없는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하여 질리게 하는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목마르다. 그래서 안주할 수가 없다. 이미 뒤에 있는 일은 잃어버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의 추억을 더듬으며 참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직 다 알지 못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역은 더 이상 삶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된다.

Part 3 이미 주어진 정체성을 확고히 붙잡으라 (안주의 위험) (The danger of arrival – Forgetting who you are)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빌 3:13-14)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현대 사회의 목회자들은 결국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게 된다. (Forgetting who you are)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마르면 우리는 어느덧 높아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배가 부른 사람에게는 더 먹어야 할 이유가 없다.

경주 중에 잠이 들어버린 토끼처럼, 인생 중에 한 때를 추억하는 것을 낙으로 삼아 더 이상 앞에 있는 소망을 향해 달려 나가지 못하는 무기력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Chapter 12. 내 말만 들어. 나한테만 귀 기울이라고 (Self-glory)

아마도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매혹적이고, 기만적인 유혹은 없을 것이다. 또한 사람들의 칭찬보다 더 강력한 중독성을 지닌 것도 없고, 자기 영광에 취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자아도취도 없을 것이다. (p. 239)

하나님께서 사역을 통해 나타내시는 참된 영광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사역 안에서 방황한다. 이들은 미지의 땅에서 지도를 잃어버린 여행가들과 같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상실된 자리에 가장 먼저 오르는 것은 우리의 영광이다. 현대 목회 문화에서는 이런 종류의 사역자가 '성공'한 것으로 여겨지는 일이 빈번하다.

우리가 자신의 영광을 구하게 될 때 피할 수 없는 문제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실상 그다지 영광스럽지 않다는 엄연한 현실이고, 다음으로는 몇몇 사람들이 이 사실을 간파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한 편으로는 자신을 포장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반대자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 일은 성공할수록 실패다.

우리가 점점 우리 자신의 성을 쌓아 올려가는 동안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떠나버리기 때문이다.

Chapter 13. 주님 나중에 봐요 전 지금 너무 바쁘거든요 (always preparing)

. 많은 목회자들은 이 단순한 진리를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중요한 순간을 '준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미루거나 스쳐 지나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사역이나 교회의 행사 이전에 우리 자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애쓰다가, 우리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지 못해서는 안 된다. 좋은 운동 선수는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몸을 혹사시키지 않는다. 훈련은 무시될 수 없는 것이지만, 더 나은 시합을 위해서 얼마든지 포기될 수 있어야 한다. 항상 준비만 하다가 (*always preparing*) 정작 중요한 사역이 시작되었을 때 이미 지쳐버린 상태라면 그 동안의 노력이 의미를 잃어버린다.

하나님과 홀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때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개인 예배의 시간이냐, 아니면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이나를 둘러싸고 한 바탕 전쟁이 일어난다. (p. 264)

이 주제는 당연히 앞 장과 긴밀하게 연관된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또 하나 있다. 많은 목회자의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경건 생활과 목상이 결여된 이유가 단지 끊임없는 사역 준비 때문만은 아니다.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다 '완성했다'는 생각에 있다. (**Product of arrival**) 사역이 바쁜 데다 '다 완성했다'는 생각까지 겹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개인 예배다. (p. 265)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붙들어 세운다. 그러나 이 삶의 추가 상실되고 나면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다. 이러한 사역에 어떻게 만족이나 감사라는 말이 있을 수 있겠는가? 엄청난 비용을 들여 성형 수술을 한 여자가 이 사실을 모르는 배우자와 결혼 한 후에 자식을 낳을 때면 얼마나 불안하겠는가? 항상 걸치레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국 속일 수 없는 끝자락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Chapter 14. 너무 다른 두 인격으로 사는 삶, 이젠 익숙해 (separation)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대외적인 목표를 내걸고 실상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목회자가 적지 않다. 저자는 이러한 목회자들에게 사역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운다.

사역이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을 위한 투쟁이다. (p. 289)

헬무트 틸리케의 반성을 돌아보는 것이 이 장에 대한 좋은 반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대인은 광고와 선전을 귀가 닳도록 들어왔다. 현대인은 어떤 상품의 선전 광고의 말이 그것을 선전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확신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사람들은 선전, 광고가 사람들의 돌 같은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가차없이 반복되는 진부한 문구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현재 광고되고 있는 어떤 '레몬 주스'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텔레비전 스크린에서 광고하는 사람이 선전하는 것처럼 정말로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고 하는 사람은 입술로만 좋다고 말하는 과장된 선전을 그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 광자가 집에서 혼자 있을 때에도 스스로 이 '레몬 주스'를 마시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할 것이다. 설교자여! 그대는 자신이 강단 위에서 번쩍 쳐들고 있는 그 한 잔의 '레몬 주스'를 몸소 마시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선전과 광고에 익숙해진 현대인이 던지는 물음인 것이다. ¹

결론.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서 (벧전 5:6-11)

Chapter 15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so, what now?)

아마도 이것이 지금 읽고 있는 이 책의 핵심에 해당할 것이다. 이 책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우리 자신도 똑같이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 사역자의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상세히 설명한 것뿐이다. (p. 315)

1) 자신의 위치를 알라! (6절 :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것이 핵심이다. 우리의 내면에서는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에게서 '주님의 사자'라는 공식적인 직함과 권위가 주어졌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전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것이기에 스스로 왕이 되려는 욕망을 버려야 한다. (p. 305)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보좌를 우리에게 넘겨주지 않으시며, 자신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리에게 양도하지 않으신다. (p. 307)

'나'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필요하다. 사역의 직위와 장소를 바꿀 수는 있지만, 내 마음의 생각과 욕망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p. 307)

2)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안심하라! (7절 :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는 이렇게 하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절대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복음을 우리 자신을 향해 크게 외치라. (p. 309)

¹ 헬무트 틸리케 "현대교회의 고민과 설교" (대한기독교서회 ; 심일섭 역, 2005, 서울) p. 10

3) 자신의 사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라! (8절 :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슬프게도 우리의 사역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기능적으로만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많다. (p. 310)

우리는 매일 우리의 영혼을 양육하는 일에 헌신해야 하며, 마귀의 손길이 교회의 직원들이나 다른 지도자들에게 미치고 있는지 예의주시해야 한다. (p. 312)

4) 마귀를 대적하라! (Resist, no matter what) (9절 :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아)

전쟁에 참여한 모든 군인이 어떤 식으로든 고난을 겪듯이 구원을 위한 영적 싸움에 가담한 목회자들도 어떤 식으로든 고난 받을 수 밖에 없다. (p. 313)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고, 소홀히 취급하셨고, 외면하셨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라! (resist) (p. 314)

5)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라! (10절 :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단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전하는 도구가 아니다. 우리도 항상 은혜를 필요로 한다. (p. 317)

에필로그. 나는 목사다!

송구 영신 예배의 피곤함이 풀기기도 전에, 교회에 갓 나오기 시작한 학생들 예닐곱이 교회의 문을 두드리며 함께 축구 하러 가자고 부산을 떨었다. 처음에는 거의 아이들에게 이끌리다시피 운동장으로 갔지만, 금세 상쾌한 마음이 되어 함께 땀을 흘리며 뒹켜 놀았다. 막 10여분 정도가 지났을까... 이 학교 관리인이 본교 축구부 훈련이 있으니 운동장을 비워 달라고 했다. 우리는 아쉬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그런데 한 아이가 내게 말했다. "목사님, 축구부 아이들이 불쌍하네요. 설날 아침부터 축구하느라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내가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도 설날 아침에 축구하러 왔잖아. 그럼 우리도 불쌍하겠네?" 그러자 그 아이가 다시 더 크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서 즐겁게 축구하는거고 저 친구들은 억지로 힘들게 훈련하잖아요. 전혀 다르지요."

목회 사역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목회라는 동일한 직무가 어떤 사람에게는 지긋지긋하고 고된 짐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감사하고 기쁜 삶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 같다.

교회 역사상 능력이나 자격의 부족함으로 사역에 실패한 목회자는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실수와 허물이 드러났을 때 얼마나 낙심하는가? 사역을 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가릴 수 있는 포장지를 만들고 있는 목회자들이 왜 그렇게 많은가?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묵묵히 가십시오. 설령 가다가 죽더라도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가는 길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목회 결과가 안 나온다’라는 성공시대 후유증에 묶여 있지 마십시오. 목회는 오늘의 고난을 극복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박영선. 국민일보. 12월 4일)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 나는 허물 가운데서 살아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고, 그의 선하심을 신뢰한다. 나는 삶의 터에서 일을 하며, 일의 터에서 안식한다. 나는 실패한 사람 같으나 성공한 사람이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사람이다. 나는 ‘목사’다.

토의사항

1. 이 책을 통해서 배운 것이나 생각한 것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세요.
2.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필요한 권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